

제 48 호

연중 제 30 주일

(강림후 20)

1973. 10. 28

# 숲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 강론 ◎

## 안녕하세요?

—본당의 분위기—

김영구 신부



서양 사람들은 서로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술도 마시는 곳을 <살롱>이라고 합니다. 우리네 사랑방도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살롱>이나 사랑방이 항상 좋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여간 거기에는 교제하기 좋은 훈훈한 우정의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방의 우정은 모든이가 동경하는 정신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에든지 이러한 훈훈한 분위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머지나 <우리 본당>에 응당 이런 분위기가 꼭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미사 시간이 임박해서 성당에 들어가거나 또는 좀 늦게 옵니다. 그리고서는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성당에 들어가 미사 참례 합니다. 미사가 끝나면 즉시 우르르 물러 나갑니다. 극장이 파환 것 처럼 말입니다.

어떤 때는 불난 집에서 나가듯 도망치기도 합니다. 또는 전염병을 옮을까봐 겁이 나는 사람처럼 뺑소니 치고 달아납니다.

우리는 좀 더 부드럽게 사귀고 좀 더 상냥하게 <서로 인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너무나 쌀쌀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본당에 낯선 사람이 오거든 얼른 가서 상냥하게 인사하고 회장님, 반장님 또는 자기 친구들을 소개해주어야 마땅합니다. 시간이야말로 몇분 안 걸립니다.

우리는 부자이건 가난한 이건, 또는 유식하든, 무식하든 모두가 친구를 사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서로 다정하게 인사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끼리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 우정을 맺고 있다면, 우리 성당에서야 훨씬 더 두터운 우정을 맺을 수 있고 또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프로테스탄 교회에서는 아주 인사가 바르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모두들 쫓아와서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성당에 있는 모든 이를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악수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당에 들어서면 몸을 단정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천주님의 궁전에 들어섰음을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당 마당에서는 서로 인사할 수 있고 또 인사해야 합니다. <찬미 예수> <안녕하세요?> 한마디 쯤 하는데 무슨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낯선 사람이 오거든 인사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대로 반가운 표정을 다해서 서먹서먹하게 느끼지 않도록 주선해야 합니다.

(전주시 교동 1가 132-4)

### \*이주일의 미사\*

□**입당송** 주를 찾는 마음은 즐거워라. 야훼님 생각하라. 그 권능을 생각하라. 언제나 그 얼굴을 그리워하라

□**제1독서** (예레 31 : 7-9, 경향잡지 10월호 P.39)

소경과 절름발이를 사랑으로 고쳐주리라.

□**증계송** ◎주께서 과연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못견디게 기뻐했나이다.

주여 사로잡힌 우리 겨레를 남녘 땅 시내몰처럼 돌려주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

□**제2독서** (히브리 5 : 1-6, 성서 P.501)

멜키세덱의 차례대로 영원한 사제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내 보이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0 : 46-52, 성서 P.102)

주여, 보게 해 주소서.

□**신자들의 기도**

1.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여, 온갖 고통중에 떨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상지의 빛이신 주여,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야말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불쌍한 일은 당신의 열어보시심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완악(頑惡)한 마음입니다. 주여, 우리들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

3. 주여, 지금은 독서의 가절입니다. 이 좋은때, 우리 모두 당신의 가르침에 눈뜰리게 하소서. 특히 젊은이들을 불량서적의 해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

✦ 주여 비오니,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어,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으로 생활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염성체송** 당신의 승리를 우리가 기꺼워하고, 우리 주 이름으로 깃발을 올리나이다.

### \* 숲정이 산책 \*



줄줄 쏟아졌으면.....

㉟

# 민 음

## 김 재 옥

옛말에 “鳥足之血”(조족지혈)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바로 “새발의 피”라는 말이다. 다시 어귀를 분석해 보면 어떤 일에 대하여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뜻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 사업가가 어떤 큰 뜻을 이루려 해도 자금이 너무나 모자라서 포부를 이루지 못한다. 대정치가가 되고 싶어도 정치적 역량이 부족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고, 미완성의 것들이 완성되지 못한 채 버려져 있는 아귀물들이 많다.

이렇게 인간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고 그 저력을 북돋아 주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교회와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과 정신의 일치에서 진실한 바탕의 씨알이 싹틀 때 그 마음은 교회와 직결되고 또 십자가의 신비에 통하는 것이다. 천주는 전능 전지하시다.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심판자이시다. 천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렇기에 죄진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욱 그 죄값에 대한 자신의 반성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천주는 사랑으로 죄진자들의 진실한 통회와 있을 때 용서해 준다.

종교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 믿음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다하지 못할 일을 신에 의뢰하여 풀려는 무당들의 당굿놀이와는 다르다. 창조의 절대자요, 전지 전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위력은 바로 우리 정신 세계를 승화시키는 혁신을 갖게 한다. 아무리 과학의 세계가 고도화 하여 아폴로 12호가 달에 착륙하고 또 화성을 정복하는 우주 시대가 도래한다 해도 신앙은 멸시될 수 없으며, 그 절대자인 하나님의 존재는 더욱 뚜렷해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우주 시대를 만들게 한 인간의 과학적 만능을 하늘님께서 배풀었기 때문이다. 고로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 수록 종교가 더욱 뚜렷해 지며 달에 착륙한 우주인도 “우주는 참으로 아름답더라. 그 신비를 알고 하늘님을 더욱 알게 되었노라” 하면서 기도를 올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우리의 부족함을, 또 미치지 못함을 우리는 믿음에 귀 의하며 힘을 빌면 다 하지 못하는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덕진분당, 해성중 교사)

++++ 위령의 날(11월 2일) ++++++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이가 죽지 않게 되었고,

그 한 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나이다.

첫미사 독서 (사도행전 10:34-43, 성서 P. 290)

복음 (마태오 5:1-12, 성서 P. 7)

영성체중 -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이는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둘째미사 독서 (로 마 5:5-11, 성서 P. 346)

복음 (마태오 11:25-30, 성서 P. 25)

영성체중 - 주여,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자애로우신 주여, 당신 성인들과 함께 비추소서. 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자애로우신 주여, 당신 성인들과 함께 비추소서.

세째미사 독서 (로 마 5:17-21, 성서 P. 347)

복음 (마태오 25:1-13, 성서 P. 61)

영성체중 -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우리 비천한 몸을 변화 시키사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닮게 하시리라.

위령의 날을 맞아

돌아가신 부모와 가족과 친척,

세상에 빛을 남기신 분들,

아무도 기억해줄 이 없는 영혼들을 기억합시다.

++++ 11월은 위령성월 ++++++

### \* 이 주간의 성경 \*

29(월) 독서 (로 마 8:12-17, 성서 P.351)

복음 (루 가 13:10-17, 성서 P.167)

30(화) 독서 (로 마 8:18-25, 성서 P.352)

복음 (루 가 13:18-21, 성서 P.167)

31(수) 독서 (로 마 8:26-30, 성서 P.352)

복음 (루 가 13:22-30, 성서 P.168)

1(목) ◎ 모든 성인의 날

독서 (요 한 1서 3:1-3, 성서 P.545)

복음 (마태오 5:1-12, 성서 P.7)

2(금) 위령의 날

3(토) 독서 (로 마 11:1-29, 성서 P.358)

복음 (루 가 14:1-7, 성서 P.169)

☆ 교우들의 살림 센터 ☆

## 전라 종합 전자 상사

T.V. 신통

다목적 전기기술 등

● 성모병원 옆(영화 예식장 자리)

전화 ㉠ 2757

조 윤 회(베드로)

※ 최신형 드레스 및 신부화장 ※

## 결혼 미용실

교우 여러분께 반액 봉사

중앙성당 앞

전화 ㉠ 6794

이 현 주(테레사) 올림

\* 단 교우 월부 판매 \*

동 남 샐 프 { T V  
B 장 고  
석 유 스토브

전주극장 동편 입구

전화 ㉠ 8121

여 요 셉(운창)

□ 양 지 쪽 □



# 내일은 너

서양의 공동묘지 입구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곳들이 많다고 한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세상을 하직하고 땅속에 묻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엄숙한 교훈이라고 한다. 오늘은 내가 죽어서 돌아가지만, 내일은 네가. 그러하리라 하는 경고임에 틀림없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세상에 살다가 죽지 않은 이 없다. 늙지도 않겠다고, 죽지도 않겠다고 버둥대던 진시황도 죽었고, 영원히 권력을 잡을 것처럼 여겨 칼날을 휘둘러대던 독재자들도 다 갔다. 세상의 부(富)를 한손에 움켜쥐려던 그들도 갔고, 내노라고 아름다움을 뽐내던 절색(絶色)의 미안들도 갔다.

오히려 제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아니 그게 제명이었던지도 모르지만, 갔다. 교통사고로도 죽고, 총과 칼에도 쓰러졌고, 백성의 소리에 귀를 막고 물러간 이들도 있다. 그들도 그럴줄은 몰랐을 게다. 하지만 어이없이(?) 갔다.

삶의 연속이 죽음이요, 또 죽음은 새롭고도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것을 믿는 이들한테서조차 죽음을 좋아하는 이를 만나기는 힘들다. 사실, 갯세마니에서 울려나오는 그리스도의 처절한 기도가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될 수 있는 일이오니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다음 기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음앞에서 지나치게 두려워 떨때 인간은 비겁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역사에서 너무나 자주 만난다. 가까이는 한국 천주교회 박해의 역사에서도 만날 수 있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만날 수 있다.

그 인간 하나를 놓고 볼 때, 그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하며, 누리고 싶은 부귀를 생각할 때,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그일로 인해서 이 사회에 끼치는 해독이다. 우리를 명들게 하는 부정과 부패, 인간성의 말살이 바로그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죽음앞에서 용감할 때, 그들은 우리들에게 빛을 하나 더 해주는 것이다. 영원을 향한, 진리를 향한, 평화의 낙원을 찾을 수 있도록 비추어 주는 등대를 밝혀 주는 것이다.

낙월지는 이 계절에 먼저 가신 분들을 다시한번 기억해볼도 무익하지는 않으리라(감)

## 요심이 (15) 金柄午

요심이 물어보시오 안 팔을 잘 사용하는분은? 복자 요신부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정말 위해서 알았다 중앙한신부



호랑이가 밤에 어흥 어흥 그건 전동범신부



잘 맞혔으니 돈있으면 과자 사먹어라 무엇이라 까부니



책은 바른 신앙을 기르는 양식이요. 매개체다. 성 바오로 서원

### 가톨릭 센타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화 33498)

- 10월30일(화) - 8시 성경교실
  - 11월 1일(목) - 8시 지성인 교리
  - 2일(금) - 8시 레크레이션
- (주최; 가톨릭 센타와 JOC)  
 외국 문화교실; English Conversation  
 매주; 화, 금 7시  
 독어; Heiderose; 화, 목 6시  
 Morgentau; 월, 수 6시

### \* 알 림 \*

교회와 사회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가톨릭 센터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 외에, 바람직한 복지 문화 사회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새 프로그램을 찾고 있어오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은 부디 저희를 좀 도와 주십시오.

### \* 호화 실내장식과 쾌적한 분위기 \*

## 프 랑 스 제과 \* 입 금 님 찾 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33511 찻집 33513  
김원준(야고버)

### \* 교형 여러분의 집 \*

## 스타 사진관

장남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33694

노루표 페인트 전북대리점  
(도장공사 전문)

## 대한 도료 상사

● 중앙성당 정문 옆  
전화 334874  
김영구(디도)

전주 시내 6개 분당 소식

1. 천주교 전주 교구 사목협의회

- ① 제4기 사목 협의회 회장에 조성호씨 피선.
- ② 송 영선씨 (제2-3기 사목협의회의 회장) 총재 주교가 수여하는 감사장 받음.
- ③ 남상룡(덕진), 양학도(중앙), 이현재(전동)씨등 14명의 모범 사도회 임원들, 총재 주교가 수여하는 표창장 받음.

2. 푸르실로 전주교구 사무국

10월 24일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있는 제3차 전국 울트레야에 56명 참가

3. J. O. C. 전주 교구 체육대회 (다음 주일 10시, 성심 여중 교정에서)

4. 성 프란치스코 재속 전주 방지거 형제회

- ① 심의회-매월 첫 토요일 오후 1시반 (중앙성당)
- ② 월례회-매월 첫 토요일 오후 3시 (중앙성당)
- ③ 수련자 교육-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2시 (중앙성당)

(소) (시)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이복석

- 1. 신용 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2. 부녀부 간부 총회 (오늘 공식 미사후)
  - ① 사업 및 결산보고 ②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 3.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 4. 중·고등 학생 소풍 (다음 주일 오전 7시반)
  - ① 장소-모악산과 금산사
  - ② 준비-도시락과 교통비 150원
  - ③ 집합-성당
- 5. 성심 부녀회 월례회 (11월 2일 어머니 미사후)
- 6. 매괴회 (매괴회에 가입하실 분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입하하기 바람)
 

<매괴회에 가입하여 성모님의 은총 받으시다>

  - 교무금 신입 1,577,750원(예산액의 50%)
  - 지난 주일 봉헌금 35419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신용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교육
  - ① 주일 공식 미사후와 저녁미사후, 월·화요일 저녁 미사후
  - ② 교육을 받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음.
- 2. 교무금을 10월만으로 정성을 다해 양심껏 신입합시다
- 3. 감사와 속죄의 제물로 마련한 주일금을 정성껏 바칩시다.
- 4. 푸르실로 팀 회합 (일요일, 박흥기씨백)
  - 지난 주 성미 2말 5되 (누계 208말 5되)
  - 전교 주일 특별헌금 2,100원
  - 지난 주일 봉헌금 12,20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철 사도 회장 조해형

- 1. 재속 형제회 심의회 (11월 3일 <토>)
- 2. 재속 형제회 월례회 (다음주일)
- 3. 성모의 밤 (10월 31일 <수> 밤 7시반)
 

복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4. 미사시간 변경 (다음 주일부터)
  - ① 주일-오전 7시, 10시, 오후 6시
  - ② 평일-오후 6시 (금요일 오전 10시)
  - ③ 토요일-오후 5시 (어린이 미사).
- 5. 11월은 위령 성월 (11월 2일 10시 합동 위령 미사)
 

성심껏 미사 예물을 바쳐 주십시오.

  - 신축 성미 2말 5되 (누계 81말 5되)
  - 전교 주일 특별 헌금 1,030원
  - 지난 주일 봉헌금 17,66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의 사도 회장 최상의

- 1. 새로 영세하신 32분께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축하드리며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2.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밤 미사후)
 

상임 위원과 반장님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 3. 금주의 미사 (수요일은 미사 없음)
 

월·화-아침미사, 목, 금, 토-저녁미사
- 4. 11월은 위령 성월
 

지상 교회에서 거주하는 우리들만이 연령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16,198원(전교 주일 헌금 포함)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 1. 교무금 신입은 10월중에
 

현황-123세대, 1,082,100원
- 2. 부녀부 성미 운동에 협조합시다 (미사 참례시)
 

현황-헌금 5만원, 백미 3되
- 3. 방지거 삼회 (오늘 오후 2시)
- 4. 첫 영성체 교리 (26일 오후 4시부터 시작)
 

12월 8일 첫 영성체 예정
- 5. 신용 조합 신임 이사장에 한 수옥씨 (10월 14일부)
  - 전교 주일 특별헌금 6,270원
  - 지난 주일 봉헌금 31,910원, 감사합니다.

★ 11월은 위령 성월 ★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중택 사도 회장 김중환

- 1. 미납된 교무금을 속히 완납합시다.
 

주일금 배가 운동에도 전력을 다 합시다.
- 2. 구역장님들은 교무금 할당을 10월말까지 끝내십시오
- 3. 사도회 확대회의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임시회의-11월 2일(금)오후 8시
- 4. 부녀부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5. 푸른 양지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지난 주일 봉헌금 5,115원, 감사합니다.



◎ 지난 주일에 있는 사목 협의회 교구 위원 총회는 앞으로 2년간 교구 사목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중요한 총회였다.

그런데, 개회 벽두부터 정족수가 안되어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장을 부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참가 자격이 있는 총원이

각 분당 사도회장 31명과 교구 각 분과위원장 5명으로 36명 가운데, 적어도 19명이 참석해야 총회가 성립될 수 있다.

전주시내에서도 늦장을 부려 예정된 시간에 총회를 갖지 못한 것은 앞날의 평신도 자도적 활동을 위해서도 분명히 증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총회는, 18명의 사도회장들과 5명의 교구 각 분과위원회의 임시(?) 위원장 들로서 끝낼 수 있었다. 정말로 이래야 할까?